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경일케미칼의
경쟁력**입니다.

KYEONG IL CHEMICAL CO., LTD

최 고 가
아 니 면
만 들 지
않 습 니 다

주식회사 경일케미칼은 1982년 8월에 경일화학공업사를창설하여 각종 합성수지 및 폴리우레탄수지, 특히 피혁 섬유처리용 수성 및 유성 우레탄수지 접착제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992년에는 피혁 Finish 약품 개발 생산으로 천연피혁의 질을 한층 높여 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기업입니다.

기술혁신과 공장설비 증설 및 확장으로 1996년 1월에 주식회사 경일케미칼로 법인 전환하면서 앞서가는 많은 제품들과 많은 협력업체에 힘입어 제 2의 도약을 선언한 우수 중견기업입니다.

21세기의 떠오르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및 협력업체의 성장속도를 돕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고객만족 경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6

Vol. 203 June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6 우리문화

통권 203호 June



표지 | 황성문화원 글짓기 대회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 02 칼럼
- 06 특별 기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 10 문화원 이야기
안동문화원
14 문화역사마을
18 보성·함안·노원문화원
- 22 문화원을 듣는다
원주문화원_ 유럽문화 연수를 마치고
- 26 특집
29 연합회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일자리 창출
- 32 문화원 탐방
대전중구문화원
- 36 세시풍속
단오제
- 42 기획
수연례(壽筵禮)
- 48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 소식
60 신간소개

| 칼럼 |

다문화사회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신념

오늘날 '다문화', '다문화사회'는 관용어가 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과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민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과연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자신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을 대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나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다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우리다움'만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설이 잉태되고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민족주의, 순혈주의는 이주민을 동정하거나 냉대하게 한다. '이주민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 속에 이주민에 대한 우월주의가 숨어있다. 타자라는 불편함을 드러냄으로써 이주민을 배척하기도 한다. 이주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를 강요받는 사회통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가치'나 '진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문화, 다문화사회에 대한 철학의 부재, 인식의 부재, 신념의 부재는 다문화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주민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권감수성을 지니지 못한 다문화는 이주민의 현실을 '문화'로 포장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다문화사회는 이주민, 다른 인종과의 소통과 교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와는 다른 인종, 처지만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 감수성을 불편하게 보지 않는,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르다는 것 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또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제라는 신념을 가질 때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신동호 리서치21 대표
대구문화예술연구소장



다문화에 대한 미학적 관점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 관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그러하듯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다 보니 문화적, 사회적 성과를 무르익게 할 '긴 세월'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미화' 할 수 없는 사업들, 소소하고 작은 삶의 이야기들은 외면한다. 상품성에 매달리고 물질성만을 육화한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 철학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다.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다문화사업에 인문학적 사유가 오히려 불편해진다.

이는 낡은 것, 오래된 것, 어눌한 것에 대한 미학적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잘못된 미학적 관점이 이주민의 다양한 현재적 삶의 층위들을 거세한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다양한, 비위계적, 중층적인 리좀적인 '관계들'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이주민의 문화적 상상들을 획일화, 단순화, 직선화한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지', '교육'에 갇혀 '문화'는 낯 것의 삶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현실이 되지 못하고 도구가 되어버린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신념의 일관함, 문화적, 미학적 관점의 부재는 다문화정책이나 사업의 혼선을 야기했다. 다문화를 말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시혜적 관점의 이주민 '복지', 소통과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 대상화된 이주민 '교육'이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 버렸으며, '문화'는 사업을 매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문화 정책과 지방문화원

다문화에서 '문화'는 '복지'나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매개가 아니라 '복지'나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결과이며, 삶의 모습이다. 물론 문화예술, 문화예술행위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의 혼선의 수준은 다문화에서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로 해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책당국의 다문화에 대한 지방문화원 역할 인식 또한 이주민사업과 관련된 문화적 도구들을 공급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급하는 곳이라는 관점이 강하다. 이는 지역 내 다문화사업의 역할이나 범위가 혼선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프로그램을 양산하기도 하며, 근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에 맞는 다문화사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간 향토문화,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상당한 애정을 쏟아왔다. 다양한 회원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매개하고, 지역문화자원과 지역민의 삶을 매개하며, 이를 지역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일구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이주민을 지역의 문화, 문화자원과 매개하고, 이주민의 문화와 지역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지역을 다문화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지역언어, 생활 및 풍속, 문화자원 관련 자료, 문화인력 등 타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지 못한 주요한 자원들, 이러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방문화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누가 이주민의 이주사를 기록할 것인가. 누가 이주민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누가 이주민의 문화가 지역의 문화와 만나 보다 창조적인 지역문화역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마땅히 지방문화원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먼저 이주민의 실태, 욕구, 문화, 이주사, 생애사를 기록하고 이를 콘텐츠로 확보하는 일을 권하고 싶다. ‘지역의 이주민사’ 등 이주민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은 지방문화원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매개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이고 인문적인 가치를 지닌, 보다 문화적인 관점을 지닌 문화적 기획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아니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존의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에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양태의 다문화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획 또한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의 역사, 문화, 환경자원, 특산물 등을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이 더불어 사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주민사업 및 사업방식에 대한 선형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선형적인 이해를 넘어 보다 창의적인 사업과 사업방식을 고민하길 권한다. 무릇 ‘문화’를 한다는 지방문화원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지방문화원이 이주민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지방문화원이 하는 이주민사업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진전, 정신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꿈일까. 꿈은 다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거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라고 정의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빠짐없이 맞이하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죽음문화'라고 일컬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대가족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또 다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차츰 늙어가 죽음에 이르렀던 시절의 죽음이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생의 일부분이며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일상이었다.

어린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아져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과정과 떠나보내는 모든 절차에 함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죽음이란 어떤가. 봐서는 안 될 그 무엇, 우리들 삶의 경계 안에 들여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불기축의 그 무엇, 가능하면 빨리 치워버려야 할 그 무엇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저 구석에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나면 그 뿐, 마치 우리에게 영원히 죽음이 없는 양 다시 또 일상의 바퀴는 앞으로 숨차게 내달린다.

지난 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75세 여자 어르신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평소에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며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지난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연명 장치의 제거를 선언했다. 이 일을 계기로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엄하고 자연스럽게 맞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 제대로 된 죽음의 모습과 죽음준비의 바른 길을 찾는 일,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지게 되었다. 죽음준비는 이렇게 죽음 자체에 대해, 혹은 죽음의 방식에 대해 떠나할 것 없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2006년에 한 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죽음준비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 전체에 ‘웰다잉(well-dying)’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지만, 그래도 다행히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제대로 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일의 역설

죽음보다는 당연히 삶이, 그것도 젊고 생생하고 힘 있게 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준비에 관심을 갖게 하고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죽음준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한 마디로 죽음준비는 당장 죽지는 게 아니고, 죽는 방법을 연구하지는 게 아니다. 죽음준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 즉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죽음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면 일상이 우울하고 어두울 것 같은데, 죽음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지 모르니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준비교육은 곧 삶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음준비가 우리들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

우선, 몸을 가진 존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 원하는지 미리 밝혀두는 일을 통해서 삶의 방식 못지않게 중요한 죽음의 방식을 고민하고 질문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진정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생존 시 유언서(Living Will)' 나 '사전 의료 지시서' 를 작성해 놓는 것이다. 여기서 '생존 시 유언서' 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 이라고도 하며, 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할 경우에 대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선언서에서 명하는 것이다. 또한 '사전 의료 지시서' 는 자신이 법적으로 온전하게 행위 할 수 없을 때인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행위 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자신에 대해 어떠한 진료 행위를 시행 혹은 시행하지 말 것인지 결정하여 둔 문서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죽음을 단순한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생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에 더해진다면 삶과 하나로 이어져있는 죽음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다. 주위의 모두가 예측하고 각오하며 임박한 죽음을 준비할 때 당사자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죽음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인정하지 않아 차별하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죽음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소중한 시간이다. 그것은 떠나는 사람은 물론 남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일에서부터 그 성장과 성숙은 시작된다. 그 밖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 즉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와 장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내 삶의 뒷마무리를 내 손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떠나고 난 뒷자리가 깨끗하고 좋은 기억 속에 남길 원한다면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사별의 이픔을 어루만지고 나누는 일이다.

죽음준비는 나 자신의 죽음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사별의 이픔을 겪고 있는 주위 사

죽음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소중한 시간이다.

그것은 떠나는 사람은 물론 남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일에서부터 그 성장과 성숙은 시작된다.

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며 위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준비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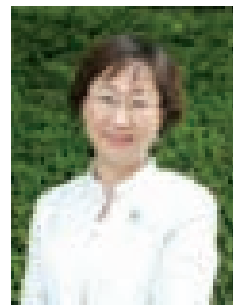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죽음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며 내 삶을 정리하게 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는 물론이고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원망할 새가 없다.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남은 생을 열심히 정성껏 걸어가는 일만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 죽음준비는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웰 다잉(well-dying)'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를 싫어하고 외면한다. 죽음을 우리들 일상에서 떼어내 저 한 쪽 구석으로 밀어내고 치워버린 결과이기에 그 거부감과 거절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뜨거운 열풍과 냉랭한 거부감 사이에서 내가 기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발자취이다.

죽음준비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선구자였다. 자신이 문힐 자리를 미리 미리 살펴보고 마지막 입을 옷을 짓고, 자신이 들어가 누울 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누워보곤 했더니 삶과 죽음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음 속 맺힌 것과 묶은 것을 스스로 풀고 떠나야한다는 생각 또한 최고의 죽음준비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 제대로 된 죽음의 모습과 죽음준비의 바른 길을 찾는 일,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그 한 가운데 서있는 나는 행복한 죽음준비교육 전문 강사이다.



유경 죽음준비교육 전문 강사
가천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

문화원
이야기
안동문화원

안동의 민속 그 신명과 함께

전국 도시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펼쳐





安東

안동문화원

에서는 금년 5월부터 「2009 도농교류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의 민속 그 신명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인 하회별신굿탈놀이, 놋다리밟기, 저전동농요, 내방가사, 전통혼례 공연을 가지고 도시지역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로 물질만을 중시하는 도시민을 상대로 전통이 살아있는 안동의 민속문화 공연을 통해 농촌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시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4개 도시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게 되며 5월 9일 부산시 동래구의 동래문화회관에서 동래구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혼례, 저전동농요,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4일 수원시내 매현중학교 학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내방가사,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를 공연하였으며, 5월 20일 강릉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 공연을,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안곡중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안동의 민속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남은 일정은 포항, 대전, 과천, 경산, 서울 은평구 외 서울지역 3개소, 부천, 공주 등지를 돌며 공연을 하게 된다.

정광영 안동문화원 사무국장



安東



“

급속한 산업화로 물질만을 중시하는 도시민을 상대로
전통이 살아있는 안동의 민속문화 공연을 통해
농촌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문화원
이야기
통영 · 원주역사마을

통영
문어포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득증대와 정주민족도 제고
 에 크게 기여하여 남해의 대표 문화역사마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통영의 문어포 문화 · 역사마을 준공식 개최

청정하고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이 가득한 곳,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인 제승당이 있는 곳, 바다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전통지식과 독특한 어촌민속이 살아 숨 쉬는 통영 문어포 문화역사마을이 새롭게 태어났다.

통영문화원(원장 김안영)은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문어포마을에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준공식을 갖고 3년여 기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준공식을 기념하여 테이프커팅과 공로패 증정 등 다양한 기념행가 진행되었다. 특히 문어포는 섬마을로 접근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윤상휴 통영시 부시장, 구상식 통영시의회 의장, 전국 13개 지역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해 줬다.

문어포 문화역사마을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7억원 / 지방비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험가옥 신축,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마을회관 신축, 마을골목길 포장, 어촌테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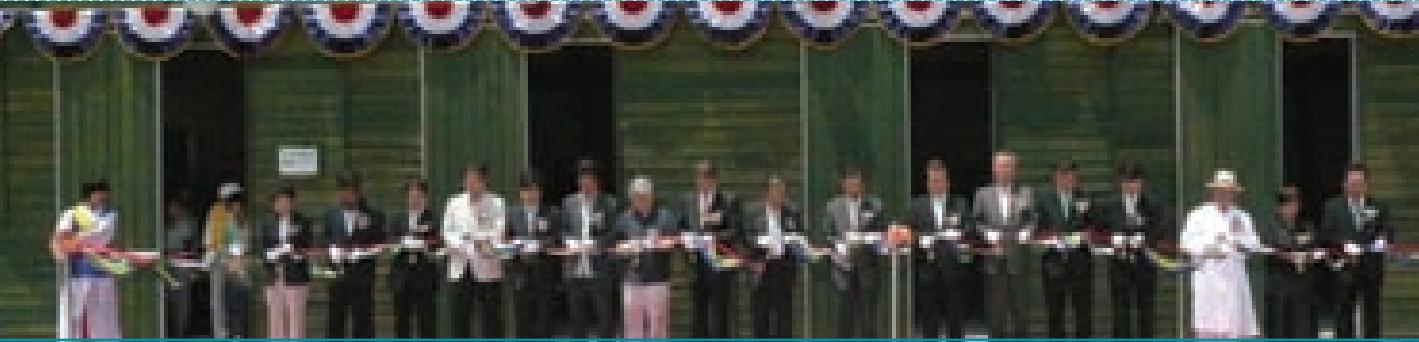
앞으로 문어포마을에서는 해산물채취, 소원대나무뗏목만들기, 전통대나무 뉘시체험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득증대와 정주민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남해의 대표 문화역사마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원주
회촌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회촌마을은 이번사업을 통해 역사민속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계승하기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지농악이 함께하는 원주 회촌마을이 문화·역사마을로 새롭게 시작되다.

원주문화원(원장 강태연)은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에서 문화역사마을 준공식을 개최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전국 9개도 13개 마을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마을민속자원 전승의 구심점이며 강원도 영서지방의 대표적 농악인 매지농악(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을 문화역사 테마로 정한 회촌마을이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1부 준공식, 2부 단오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계진 국회의원, 김기열 원주시장 등 지역내빈과 13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지역 문화원장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촌마을은 이번사업을 통해 회촌민속관 리모델링·성황당 복원·민속음식체험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매지농악·대보름달맞이축제·단오성황제, 전통음식 등의 역사민속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계승하기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회촌마을은 마을 내에 있는 매지농악전수관, 박경리토지문화관, 흙집학교 '흙저림 이수랑' 등의 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역사가 살아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마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화원 이야기

노원·함안·보성

이어지는 문화원 새동지 소식
지역문화에 기여할
지역의 문화심터로 주목받아





노원문화원 개원식

지난 5월 28일(목) 3시에 노원문화원 앞에서 새둥지를 세운 노원문화원의 개원식이 있었다. 이 날 노원구청장 이노근, 국회의원 권영진, 노원구의회 의장 김성환 그 외 각 당위원장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노원구청의 사무국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노원구청의 문화과장이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태용철 노원문화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귀빈의 축사로 개원식은 한껏 고조되었다. 테이프 커팅과 조형물 제막식, 현판 제막식에 이어 시설 관람이 있었다.

노원구 나래길 14(공릉동 710)에 지어진 새 원사는 대지 435.31㎡, 연면적 1,686.28㎡(510.9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은 열린민원실과 다목적 공연장이 있고 2, 3층은 작은 도서관, 전산교육장, 강의실 3곳, 원장실 사무국이 있으며, 4층에는 요리전용의 강의실 1곳과 하늘정원이 있다.

이 날 기념품으로 노원문화원 개원기념 수건과 노원문화지, 마들 이야기(노원 전래수필집) 등을 나누며 새 청사 개원을 기념했다.

함안문화원 개원식

지난 5월 7일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0-1번지에 있는 함안문화원 새 청사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 및 도내 대부분의 문화원장, 한나라당 조진래 국회의원, 함안 군수 조영규, 각 기관장, 문화원 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원식을 했다. 구 말산리 208번지에 있었던 함안문화원은 1965년 제일교포 이이수(李二守)씨가 지적 1,108㎡(약 308평), 2층 슬래브 건평 417㎡(약 128평)을 지어 기증하자 당시 다른 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다. 이이수 선생은 함안문화원 건물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면학을 위해 함안초등학교에 장학금과 함안고등학교에 도서관 건물도 지어 기증하여 선생이 작고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고향에서는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다. 옛 함안문화원 건물은 지은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간과 시설의 필요를 느껴 현 조훈래 원장이 새 청사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약 30억원)와 건물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심지어 나무 한 그루까지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 후 구입하게 했다. 새 청사는 넓어진 '자료실'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영화 상영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다목적홀', 이밖에 '상설 전시실', '공연장', '향토문화연구소', '전통 예절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새 청사 이전 기념으로 재판(再版)으로 발간한 [함주지(咸州誌)], 2007년도 발행된 [만성 박치복의 학문과 사생 등 몇 가지 책자와 기념 수건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보성문화원 준공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요람이 될 보성문화원이 지난 5월 26일 보성군수, 보성군의회의장, 보성문화원장, 관내 기관단체장등 800여명과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및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의성문화원, 서울 강북문화원, 전라남도 각시·군 문화원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춘맹 명창의 판소리 가락, 한정하 문화생의 가야금병창과 보성북소리예술단의 신명나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채로운 식전행사가 펼쳐졌으며 테이프 커팅 및 기념식수 등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보성문화원 건물은 낡고 협소하여 지역민들이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민보다 적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문화원건물 신축이 5만여 군민의 절실한 소망이기도 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589㎡)으로 신축된 보성문화원은 도서실, 향토사연구소, 문화사랑방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15억, 군비 20억)이 투입되어 1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건립되었다. 보성문화원은 이번 문화원 신축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6월부터는 실버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그린 웰빙 아카데미 프리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원을 듣는다

유럽문화 연수를 마치고...



강태연 원주문화원장

Europe Culture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강원도 각 지역의 문화원장들과 함께 유럽 문화 연수를 다녀왔다. 서울을 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하여 스페인 마드리드까지의 15시간의 비행시간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문화 선진국을 탐방한다는 기대감과 타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문화원장으로서의 나름의 각오가 있기에 견딜만 했다.

첫 여행지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나라 스페인이었다. 인간과 소가 죽음을 건 연희 '투우, 열정의 플라멩고, 16세기 영국을 향했던 무적함대, 소설 속의 주인공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라이벌 전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엘 클라시코 더비가 떠오른다. 바르셀로나는 우리에게 1992년 올림픽에서 황영조의 영광이 남아 있는 몬주익 언덕으로 기억되며 며칠 전에 끝난 박지성이 참가한 프리미어리그 결승 경기가 있었던 곳으로 대서양과 지중해의 입구 스페인을 찾는 항구도시다. 이곳에는 유명한 천재적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가우디 건축가는 카탈루냐며(1852-1926), 코로나마 구엘교회(1988-1914), 구엘공원 건축(1900-1926 : 구엘이 언덕에 이상적 집을 건축하여 공원을 만들어 정부에 기부체납), 카사밀라카사 등의 건축물이 있다. 특히 가우디의 놀라운 천재성과



독창성은 충격 그 자체이며 자연을 담은 건축가로 유명하다. 이들의 외형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연적이며 오랜 역사 속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가정 성당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현재도 미완성의 성당으로 앞으로 25년 목표로 건축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6대 감독으로 이어지며 현재도 가우디 설계 중심으로 자연을 조화로 시공 중이라 한다.

그리고 미드리트 수석(또래또) 대성당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세풍의 스페인 가톨릭의 본산으로 참으로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산또 또메 성당 앞에 줄을 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가 본 오르가스 백작의 예배실 입구에 걸린 백작의 매장(埋葬) 그림은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도와주고 사후에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정도로 당시 사회상과 함께 훌륭한 인간의 삶을 기리는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인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와 같았다. 알함브라 궁전은 마지막 8세기 동안의 아랍지배의 끝을 장식했으며 현존하는 아랍양식의 건축 중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이곳은 해발 900m 네바다(하얀)산맥에서 눈 녹은 물을 지하수맥으로 공급되어 식수로도 유명하다. 다음으로 포르투갈 신트라에 까보다 로키로 마을을 탐방하였는데 유네스코가 문화유산

으로 지정한 탐과 마을이 있으며 이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우리나라 하회마을과 같음)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찾은 모로코의 고대도시인 페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1,000년의 중세 도시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든 대자연 만든 작품이든 간에 경이로운 광경과 마주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고 이들 모두가 고스란히 과거가 아닌 현재의 동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삶의 숨결이고, 인간의 의지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증거물들이다.

이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의 이유와 가치를 몸소 실감할 수 있었고 우리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세계인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물질이 풍요의 잣대가 아니라 가난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삶의 물질적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경영하는 영혼의 자유를 배울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소회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면 한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지나친 자기 비하일까?



이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의 이유와 가치를
몹소 실감할 수 있었고
우리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세계인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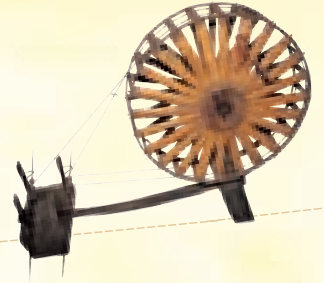


Portugal

산토 토메 성당 앞에 줄을 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가 본
오르가스 백작의 예배실 입구에 걸린
백작의 매장그림은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도와주고
사후에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정도로
당시 사회상과 함께
훌륭한 인간의 삶을 기리는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인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와 같았다.

| 특집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본 노인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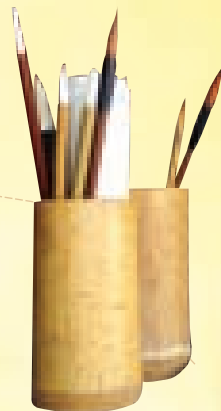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국 노년층의 문화역량을 발굴, 개발하고 문화를 통해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과 연계해 사회참여활동,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2005년부터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어르신문화학교는 전국 각 지역 문화원에 개설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이 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개교 첫해인 2005년 1,6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어르신문화학교는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고 전환과 함께 4,500여명의 수강생의 참여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표 1> 이처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무엇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 되었다 할 수 있다.

어르신문화학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와 더불어 급성장을 보인 분야가 있다.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노년층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그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해주는 복지사업으로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로 추진 중이다.

지방문화원의 위 사업 참여도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지방문화원 21개원(총 27개 프로그램, 720여명 참여)이 시행하고 있다. 사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으로 티수행기관의 보편적 생계형일자리와는 달리 문화, 예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지방문화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 고유성을 살린 사업이 두드러지는데,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교육을 통한 그 전문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힘과 시간을 들여 수행하는 노동이 아닌, 직접 배우고 느낀 문화의 전파, 전수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지방문화





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며,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특수성을 살린 고유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금년 지방문화원 시행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분석해보면 지역문화유산해설사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공연단, 제작체험활동, 어린이 대상 멘토 등 보다 활동적이고 사회참여적인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2009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를 수행하는 문화원은 총 137개원이다. 그 중 일부는 3,4년차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기수료생 중심의 동아리, 협회, 기업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바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일례로 평택문화원 실버기업 '희망솨대'를 성공적 사례로 들 수 있다. 2007년 9월 창립한 이 기업은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솨대제작, 상품판매, 지역사회 문화사업 공동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노인 4명 중 1명(24%)이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다. 전체 노인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은 약 58만 여명(12%)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단지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에 기반한다.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 전체경쟁력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현재 당면 과제는 노인세대의 근로 욕구는 이에 반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에 경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일을 하는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 독립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감소하고, 의료비가 절감되는 등 국가재정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므로 실효성이 크다하겠다.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문화적 소외감이 큰 어르신, 경제력 있는 가정이 부재한 노노(老老)가정. 이에 사회 전 구성원이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있는 발전 및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 노후의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처럼 활동적 노후,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 02-704-433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주임 이대군 · 담당 정선영

관련 출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http://www.ilmoa.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표 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실적(2005~2009)

연도	기간	실시 문화원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2005	2005. 10 ~ 2006. 2	10개 문화원	10개 시범 프로그램	364명
2006	2006. 5 ~ 2007. 1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	1,723명
2007	2007. 4 ~ 2007. 12	76개 문화원	76개 프로그램	2,593명
2008	2008. 4 ~ 2008. 12	100개 문화원	100개 프로그램	3,522명
2009	2009. 4 ~ 2009. 12	137개 문화원	137개 프로그램	약 4,500명(추산)

※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2007. 10. 20 ~ 22), 2008 실버문화축제-전주(2008. 10. 10 ~ 12) 참여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표 2〉 '09 지방문화원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현황

('09.2월말 기준)

문화원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마포	마포문화사랑 동아리	지역문화재 지킴이 활동
기장	문화재 해설사업	지역문화유산 해설 활동
남구학산	실버극단학산	공동창작극을 지역단체, 시설 등에서 공연 활동
대전동구	폐백음식 만드는 어머니들	폐백음식 제작 및 납품
대전서구	신비한 꽃누루미 학습	꽃을 이용한 생활용품 제작 및 판매
	실버 민요합창단 문화공연	지역단체, 시설 등에서 공연 활동
대전중구	대전 근대건축 실버해설사 사업	근대건축해설(관광객, 학생 대상)
유성	실버문화축매자	전통문화 공연 및 체험활동 실시
대덕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찾아가는 공연	지역단체, 시설 등에 방문 공연 활동
	대덕새싹문화탐험대의 '실버멘토'	문화를 매개로한 다양한 계층 대상 멘토활동
	작은도서관 '실버도우미'	도서관 내 도우미 활동
	장승고을을 장동어르신 '행복주걱만들다'	지역특수성 살린 주걱 제작 및 판매
평택	희망솨대 문화예술교육사업	솨대 제작, 교육, 전시, 판매 등
	우리고장 문화재지킴이	지역 내 문화재 관리, 보존 활동
	주말농장 친환경농사도우미	도시미관가꾸기, 사회봉사 등의 활동
군포	찾아가는 '군포설화' 특강	세대공감 군포설화 전수 활동
포천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지원	지역 공부방 어린이 한자 지도
속초	실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역문화 전문해설사로의 활동
양구	실버인형극단 양성 및 공연	지역 내 어린이집, 소외계층 대상으로 방문공연
	문화교육 예능지원사업	지역문화 보존, 예능강사 활동
평창	실버문화학교 '아라리'	아라리 강사 파견
	양양	언어해설사
충주	중원사랑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정보전달 및 해설
	중심고을 전통문화도우미	예술관, 박물관에서 해설 활동
	청풍명월 문화지킴이	문화재보호 및 관람편의 제공
	우리자랑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보호 및 훼손 방지
서산	노인 강사 파견사업	예절교육 및 문화해설 강사 파견
고창	향토문화강사 파견사업	청소년과 지역과의 소통 역할
김제	미술과 함께 신명나는 김제만들기	학교, 유치원, 노인정 대상 공연단 파견
	지역문화와 함께하는 역사교실	지역문화역사, 유래 등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강의
임실	문화재 정비 및 시설 관리	지역문화지킴이 양성 활동
목포	실버 남도소리공연단	사회봉사 공연 활동
함평	함평 실버문화재 해설사	문화재 홍보, 해설 활동
해남	해남군내 지명 지도 표시 작업	마을 현지답사를 통한 지도 표시작업
진주	진주성문화유산 해설사업	지역문화유산 해설 활동
합천	문화재 해설 도우미	향토문화, 문화유산 홍보

| 특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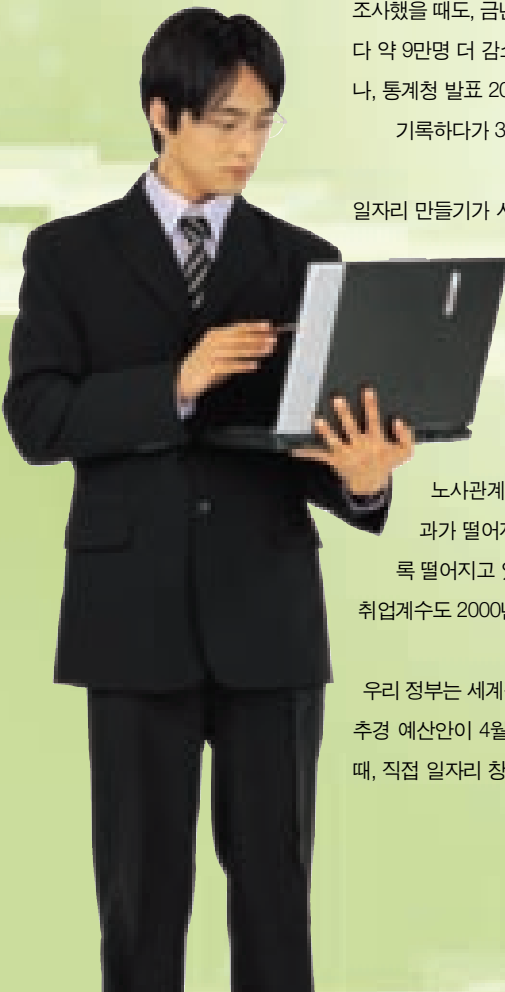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금년도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이 금년 4월 민간·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전망을 조사했을 때도, 금년 취업자 수가 연간 28.9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 예상 감소폭 20만명보다 약 9만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여러모로 고용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대란 상황은 지표로 드러나, 통계청 발표 2009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8.8만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금년 초부터 3%대 후반을 기록하다가 3월에 처음으로 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자리 만들기 시급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세계적인 자동차, 전자, IT 업종 선두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GM이 4.7만명, 포드가 4.2만명, 닛산이 2만명, 폭스바겐이 1.6만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전자업종의 경우 파나소닉이 1.5만명, 소니가 1.6만명, NEC이 2만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건비 부담 심화나 경직적인 노사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정 자동화 등 고용확대 효과가 떨어지는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0년에 전산업 취업계수는 10.9(명/10억원)였는데 2006년에는 8.4로 하락했다. 제조업 취업계수도 2000년 4.4에서 2006년 3.2로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용악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약 17.2조원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직접 일자리 창출에 2.7조원을 투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당초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 그밖에 휴업 근로자나 교대제 실시 기업 근로자의 임금 보전,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계도 고용대란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2.23)의 합의 정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5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 감소 폭을 최소화시키려는 고민의 결과이다. 무엇보다 경제계 공동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은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계의 일자리 대책 발표(2.25) 이후 30대 그룹은 2009년도 신입사원 및 인턴 채용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전경련이 4월에 조사한 결과, 일자리 지키기·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금년도 신규직원 채용계획은 경제계 대책 발표 이전 36,719명에서 52,620명으로 늘어났다. 인턴도 30대 그룹 중 19개 그룹에서 당초 계획 인원인 3,520명보다 4배 이상 늘린 14,924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을 채용하는 19개 그룹 중 9개 그룹은 당초 인턴채용 계획이 없었으나 경제계 대책 발표 이후 인턴 채용을 결정했다. 일부 그룹은 인턴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고용대란 조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인턴제를 도입했다.

채용확대 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주요 그룹들이 신규직원·인턴의 채용을 확대 중인데, 이는 임원의 임금·성과급 자진 반납·삭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는 대졸 초임 20% 삭감, 계열사 부상무 이상 전 임원 올해 급여 10% 자진 삭감, 대표이사 이상 사장단 급여 20% 반납 등을 통해 2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09년 신입사원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SK는 임원 약 600명의 연봉 10~20%를 자진 반납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인턴 1,800명을 채용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인턴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기업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임

■ 주요기업 일자리 나누기·지키기를 위한 노력사항

(‘09.3월말 현재 언론 보도 기준)

	노력 사항	채용 계획
삼성	임원 올해 연봉 20% 삭감	신입사원 5,500명(당초 4,000명)
	실적별로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도	청년인턴 2,000명
	전무급 이상은전액, 상무급 30% 자진 반납	대학생인턴 3,000명
현대차	임원 급여 10% 삭감	사별로 인턴제 확대
		(‘08년 800명 → ‘09년 1,000명 이상 추진)
SK	계열사 CEO를 포함한 임원(약 600명) 연봉의	인턴 1,800명을 채용해 협력업체 등
	10~20% 자진 반납, 성과급 반납(약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인턴으로 활용할 계획
LG	임원 기본급 10~30% 삭감	신규채용 확대(당초 3,000→4,000명)
포스코	직원 임금동결	신규채용 2,000명
	전체 임원 임금 10% 반납	인턴 상?하반기 1,600명
GS	GS건설: 09년 임원연봉 20% 반납 및	신규채용 2,200명(‘08년 수준)
	단기성과급 반납	인턴 650명(‘08년 100명)
한화	회장을 포함한 임원 급여 10% 반납과	인턴 300명 채용
	성과급 일부 반납	
CJ	소임직원 연봉 동결, 대졸초임 동결	대졸신입 상반기 170~200명 채용
		청년인턴 1,650명
STX	사원 연봉 동결	280억원 재원확보로 ‘09년 신입사원
	계열사 부상무 이상 전 임원 올해 급여 10% 자진 삭감,	1,500명 수준 유지
	대표이사 이상 사장단 급여 20% 반납	

금·성과급 자진 반납·삭감 등은 경제계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 발표(2.25)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경제계가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에 노력중이지만, 이런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노동 시장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10년전 외환위기 시절, 대규모 해고를 통한 단기적 위기대응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끼친 후유증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위기대응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낮춰야 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생산성이 북경(중국), 천나이(인도), 앨러배마(미국) 공장보다 낮지만 임금수준은 제일 높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생산직의 임금은 중국 가흥공장의 12배에 달하나, 1인당 생산대수 격차는 1.7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결국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인건비 부담이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신규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필요하다. 90년대 중반 독일 금속노조가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삭감에 양보해 공장 해외이전을 막았고, 최근 구형 반도체 공장 2곳 폐쇄로 유희인력 1,700여명이 발생한 하이닉스반도체는 임금 삭감과 인력 재배치, 무급휴가 실시 등의 전사적 고통 분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도 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들도 대졸초임을 삭감해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셋째, 지금 당장 조선, 건설, 전자 산업 등에서 밀려나는 근로자를 재훈련하고 전직을 알선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청 산하에 기술 훈련부터 구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직업소개소가 전국 325개 지역에 있다. 운영 효율성도 높아 구직자가 평균 90일 이내에 구직에 성공하며, 2007년 한해 구직 신청자 98만 7천여명 중 66%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만 25세 이하 청년층의 재취업률은 74%로 더 높는데, 알선한 곳에 취업을 3-4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수당 지급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도 실업을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을 얻기 위해 수년씩 취업 대기자로 남아 사회적 손실을 낳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넷째, 정부의 장기적인 고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쉽게 이탈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차칫 단기 일자리만 남발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순노동자만 양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은 국방, 복지과 더불어 21세기 국가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용 없는 성장과 막대한 고용관련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고용 정책의 성공 여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와 양보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성공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배상근 상무

문화원 탐방

대전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문화리더, 대전중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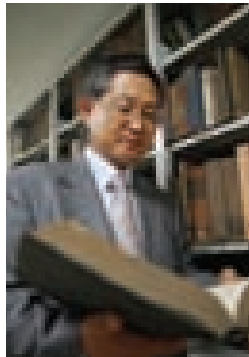
분주한 곳이지만
대전만큼 아늑한 도시가 또 있을까.
서울 못지않게 발전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 대전이다.
반듯하게 정리된 도로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이 도시, 문화의 중추인
대전 중구문화원을 찾았다.



대전중구문화원 식구들, 가운데 조성남 원장,
최창희 사무국장(좌) 김영자 과장(우)



조성남 대전중구문화원 원장



대흥동에 새둥지를 틀다

올해는 유난히 새 원사 건립 소식이 전국적으로 많다. 명실상부하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문화원이 많은 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대전문화원의 원사역사도 그리 짧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이미 독립원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 30년 가까이 한 곳에 있다 보니 시설도 낙후되었고 근방이 여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았다. 프로그램하기에 원사가 좁아 여러모로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전 중구문화원도 얼마 전 새로운 원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 대흥동에 새로이 위치한 원사는 연면적 819㎡에 총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옛 충남예식장 부지에 총 26억으로 리모델링되었는데 1, 2층은 문화원이 3, 4층은 구의 문화복지관으로 쓰인다. 2004년 원사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뜻 깊은 성과였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문화원사 건립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새로운 곳으로 와서 더욱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조성남 원장이다. “중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중구가 대전에서는 문화의 원도심이었었는데 조금씩 침체되어 지금은 예전의 활발함은 없어진 편이죠. 이제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니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접근성도 좋아져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져 기대가 큼니다.” 그의 일환으로 원도심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로 원도심에서의 문화활동지원 및 원도심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4월부터 ‘대흥동! 토요어울마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수 문화원을 초청하여 문화원간 문화교류도 하고 있다.



1. 대전문화원(1954년_국화꽃전시)
2. 1960년 이전의 대전문화원
3. 대전시민관시절의 대전문화원 (1960~1979)
4. 대전중구문화원(1979~2009)
5. 토요어울마당



대전의 뿌리 깊은 나무 중구문화원

대전의 문화원도 뿌리가 꽤 깊은 편이다. 1953년 대전문화원으로 발족한 것이 문화원의 첫 행보이니 문화원 역사 속에서도 꽤 어른에 속하는 셈이다. 광복을 맞이하고 생긴 몇 안 되는 문화시설이었으니 지금도 대전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원이라는 곳이 고향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구문화원은 마음이 바쁘다. 그 시절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열망을 돌이키노라면 책임감이 막중하다. “원사 내의 향토사료실은 많은 도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양보다도 자료들이 오래되어 그 당시의 많은 분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이 새겨져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1950년대 당시 모아 두었던 자료들이지요. 이곳에서 문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을 선배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원은 그 선배들이 함께 키워간 곳이고, 성장한 곳입니다.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셈이죠.” 무엇보다 지역민과 가까운 문화원이길 소망하는 조성남 원장. 지역민과의 소통이 부재된다면 문화원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대전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조원장은 중구문화원 뿐 아니라 대전 지역의 모든 문화원이 대전이 문화도시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첫째고, 둘째고, 마지막 다짐이었다. 문화는 생활 속의 것든 모든 것이란다. 문화원에서만 피울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 특색을 살리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그래서 문화는 사람을 규정짓는 정체성과 같은 것이란다. 그러니 문화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워 문화를 뒤에 두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문화원이 더 바빠져야 한다.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원사 건립과 함께 한참 걸음이 분주해진 대전 중구문화원이다. 그렇다고 워낙에 한가했던 문화원도 아니었다. 매해 중요하게 치러지는 행사만 꼽아도 열순



가락 열 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지역문화 학교 육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여가를 선용한 취미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요 (현재 한국화, 서양화, 소묘, 토우(초급,중급) 수채화, 댄스스포츠, 우리춤체조, 경기민요, 한국무용, 풍물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과목이 차후로 개설될 예정이다) 성인동아리를 운영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대전 중구지역의 문화와 문화재 교육을 통하여 중구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중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전근대건축실버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매 월 2회 활동을 지원하며 중구 지역 학교와 연계까지 한다고, 또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악기 연주를 실시하고 있다. 계절마다 각종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행사이다. 어르신문화학교로 '여섯 줄 통기타와 은빛하모니카 연주여행' 도 4년째 접어들어 이제 중구문화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겨우 한걸음 뻗 것 같았는데 쏜살같이 달려가는 2009년이 중구문화원에게는 더욱 숨차고 가파랐을 테지만 그 걸음은 즐겁기만 하다.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이 새둥지를 틀었을 중구문화원 가족들에게는 분주함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대전의 문화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세 시 풍 속 |

재 미 있 는 단 오 이 야 기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면,

단오날 고백하라

점쟁이는 아니지만, 가슴이 아리도록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사랑을 고백해 보라. 틀림없이 영원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단오날이냐고?

‘이 때는 오월 단오절이었다 아름다운 계절이라, 월매의 딸 춘향이도 시서와 음울에 능하니 천중절(단오)을 모르겠는가. 무성한 버드나무에 까마득히 높게 그네를 매고, 향단이 밀어라. 앞으로 힘차게 구르는 모양이, 날쌔 제비가 복숭아꽃 떨어질 때 낙아체듯하고, 뒤로 번득 가는 모양은 무산선녀(巫山仙女)가 구름타고 양대 위에 내려오는 듯하다.’

춘향전의 남원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대목이다. 이몽령과 성춘향이 광한루에서 만나 사랑을 맺는 때가 5월 단오다.

왜 하필이면 일 년 중 유독 단오였을까? 단오는 젊은이의 사랑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천지만물이 음양의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선조들의 우주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동양에서는 홀수를 음양 가운데 양(陽)으로 여겨 상서롭게 여겼다. 그래서 음력 1월1일, 3월3일, 5월5일, 7월7일, 9월9일 등 달과 날이 양수(陽數)이면서 같은 숫자로 겹쳐지는 날을 명절로 삼아왔다.

그 중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다. 5라는 숫자는 1, 3, 5, 7, 9 홀수의 가운데에 있어, 양수 중에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도 한다. 단오를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5월 5일 오시(午時 11-13시)가 되면 천체(天體)가 중앙에 놓인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주의 모든 기운이 합쳐지고 가장 풍성할 때다. 사람의 감정도 매우 풍부하고 아름다워진다. 인류는 왕성한 번식력과 함께 젊은이의 사랑이 움트는 계절이다. 이팔청춘의 이몽룡과 성춘향의 영원한 사랑도 단오에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권하건데 영원한 사랑을 원하거나, 외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청춘남녀가 있다면 이날 사랑을 맺어봐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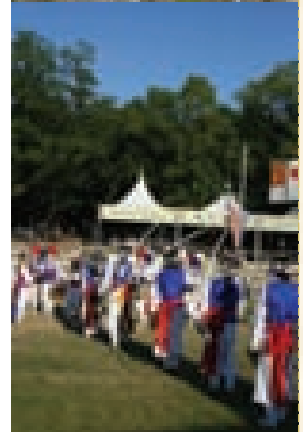
단 오,

바쁜 농사철도 지난 호시절

우리의 큰 명절로 설과 추석,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단오가 있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 설이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 으뜸이다.

설을 쇠고 보름이 지나면, 열두달 가운데 가장 큰 정월 대보름이다. 이 때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쥐불놀이를 한다. 집안에서는 안택(安宅)을 지내고, 마을에서는 동계를 올린다. 대보름이 지나면 연날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때까지 연 날리고 놀면 상놈이나 하는 짓이라거나, 게으름뱅이라고 놀림을 당한다.

왜냐면, 이맘때가 비로소 긴 겨울 동안의 농한기를 지나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해 농사의 시작인 썸이다. 추석을 즈음하여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단오가 있다.



재 미 있 는 단 오 이 야 기

단오는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조선시대의 가사, 농가월령가에서는 보리 수확기인 5월 단오 무렵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5월이라 중하(仲夏) / 망종(芒種) 하지(夏至) 절기로다. / 남풍에 때 맞추어 / 맥추(麥秋)를 재촉하
나, / 보리밭 누른빛이 / 밤사이 나겠구나. / 문 앞에 터를 닦고 / 타맥장(打麥場)을 하오리라.(중
략)

단오는 입하를 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다. 만물에 활기가 솟는다. 농가에선 이미 감자나 옥수수 등 밭곡식은 심어 놓은 상태다. 바쁜 모내기철도 지나갔다.

춘궁기를 벗어날 보리농사도 마무리 단계다.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나 느슨해질 무렵이다. 바야흐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에 좋은 호시절이다. 곳곳에서, 그네를 뛰고 씨름판이 벌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해 지고, 단오를 빌어 청춘남녀가 어울리기에 좋은 때다.

단오는 부채의 날이다

초여름에 해당하는 단오 무렵,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떡을 감고, 어른들은 등목을 한다. 체면 때문에 그럴 처지가 못되는 양반들은 발만을 물속에 담가 더위를 식히는 탁족을 했다.



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만든 것으로 죽부인(竹夫人)이라고 있다. 무더운 여름밤에 껴안고 지는데, 대나무의 서늘한 기운과 통풍이 잘되 무척 시원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은 자식이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 아버지의 ‘죽부인’ 이 아닌가.

손쉽게 더위를 쫓는 물건으로 부채만 한 것이 있을까. 올 단오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면 어떨까.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부채의 얼굴(扇面)이 넓은 방구부채가 좋다(방구는 우리말로 둥글다는 뜻). 면적이 좁은 부채는 손목을 부지런하게 호들갑을 떨어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방구부채는 점잖게 손목을 움직여도 큰바람이 나와서 좋다.

단오부채(端午扇)는 조선 말기까지 공조(工曹)에서 만들어 단오날 궁중에 진상했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지방 관청도 마찬가지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날부터 부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단오는 부채의 날이다.

단오날 여인들은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마시기도 한다. 창포탕은 사귀(邪鬼)를 물리친다고 봤다. 창포의 뿌리는 적당히 깎아서 비녀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단오날 창포잎을 머리에 꽂은 할머니들을 예사로 볼 수 있다

들관 어디에나 잘 자라는 풀로 익모초가 있다. 어머니처럼 유익하다고 하여 익모초(益母草)다. 쓴맛 치고 익모초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단오날 이 즙을 먹는다.

‘5월 5일에 /아아, 단오날 아침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고 바치나이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서,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란 다름 아닌 익모초다. 더위 타고, 병나기 쉬운 여름철의 예방약 차원이다. 익모초나 쑥잎은 가정에서 일년 내내 요긴한 약재로 쓰이는 데, 일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쎄 단오날 오시에 채취한 것을 최고로 친다.

재 미 있 는 단 오 이 야 기

“대추나무, 돌맹이 신랑 얻었네”

단오날 길쭉하고 팔뚝만한 굵기의 돌맹이를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 두면, 가지가 무성해 지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한다. 이것을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고 하는데 단오의 풍속이다. 쭈꾸미, 익모초의 채취와 마찬가지로 단오날 오시에 한다.

즐거운 명절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단오의 순 우리말은 수릿날. 동국세시기에 ‘이날 쭈떡을 해 먹는데, 그 모양이 수레바퀴를 닮았다고 하여 수릿날이라고 한다. 떡가게에서 시절음식으로 수릿떡을 팔았다.’고 기록했다.

단오음식으로 쭈이나 수리취로 만드는 수릿떡(수리취떡, 차륜병) 외에도 준치국이 있다.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다는 ‘썩어도 준치’는 가시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단오날 준치를 삶아 곱게 살만을 발라내 완자를 만들어 국을 끓인다. 준치국이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준치만 골라 잡았다. 용궁에서 이를 보다못해 모든 물고기의 가시 한 개씩을 빼내, 준치의 몸 속에 보태줘 인간들이 먹기 힘들도록 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다.

지금도 단오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네뛰기다. 우리나라 고전 가요나 풍속화를 보면 단오날 예외없이 그네 뛰는 모습이 있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도 단오날 걱정의 아내 윤충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를 쓰는 모습이 재밌게 묘사되어 있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궁궐이나, 반가의 여인들도 이날의 그네뛰기만은 허용되었다. 일종의 해방공간이랄 수 있다. 그네뛰기는 흔히 여자들만의 놀이로 알고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던 놀이다. 단 여성들이 그네 뛰기에 적극적이었을 뿐이다.



강릉단오제에 피소드

“강신목, 정말 신이 내렸을까?”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제의와 놀이라는 전통축제의 원형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어, 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유교와 무속의 제례가 혼합되어 있다. 먼저 유교의 제례에 의해 대관령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지낸다. 홀기(物記)가 있어 의례의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제례를 마치면 무당들은 대관령성황사에서 부정을 몰아내는 곳을 한다. 신(降神)이 내렸다는 나무(神木)을 모시는 것도 이때다.

10년 전에 필자가 성황사에서 본 광경은 이렇다.

성황사 주위의 야산에서 신목을 찾아 어슬렁거리던 '신목 잡이'는 “오늘 국사서낭님을 모시러 왔습니다.”고 외치며 갑자기 내달렸다. 그리고는 2-3m 높이의 맞춤형 나무를 꼭 움켜 잡는다.

이 때 신목은 정말 신기하게도, 신내림의 징조를 알리듯 몹시 흔들렸다. 이어서 신목을 베어 빨강 노랑색 등의 예단으로 온갖 치장을 했다. 그 광경은 본 일부 사람들이 “신목잡이가 일부러 신목을 흔들어 댄다”고 했다. 그러나 신이 내렸다고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1930년대 편찬된 강릉시지랄 수 있는 증수임영지에 “매년 4월 15일 강릉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위에 있는 한 칸의 신사에 가서 고유(告由)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다가 신령을 구하게 하여 나무에 신이 내려 흔들리면 가지를 하나 꺾어 기운 센 사람이 들게 하고 온다. 이 행차를 국사(國師)의 행차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오제가 아니라 굿구경이여”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동안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행사가 열린다. 축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의 영고(迎鼓)나 고구려의 동맹(東盟)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밤낮을 쉬지 않았다’는 <후한서>의 기록처럼.

단오제의 모든 곳은 동해안 별신굿의 가족 단위의 세습무들이 담당한다. 이들의 예술적 기량은 매우 뛰어나며, 자부심도 대단하다. 단오굿은 모두 16거리인데, 효녀 심청의 일대기를 그린 심청굿의 인기가 그중 좋다.

촌로들은 무녀의 춤과 노래와 재담에 때론 울고, 웃으면서 단오장을 떠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단오구경보다는 “굿 구경 간다”고 한다.

기획

축원(祝願) 만수무강(萬壽無疆) 헌수(獻壽)하는 수연례(壽筵禮)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1. 수연례의 의미

수연례란 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비는 의식인데 그때 올리는 술을 ‘수명을 받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헌수라 하였다. 옛 예서에는 수연례란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 집안 어른에게 오래 사시기를 빌며 술을 올리는 의례)라 했다. 그 시기는 명절에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옛 예서에 ‘비시가연(非時家宴, 명절이 아니라도 집안에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때는’ 어른의 생신이나 어른께서 벼슬이 높아졌을 때 라고 하였다.

그 수연례를 회갑(回甲)이나 칠순(七旬) 같이 이름있는 생신에만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어른이 오래 살으시기를 바라는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일을 이름있는 생신에만 하겠는가? 당연히 어른의 생신이라면 어느 생신이든지 자손이 술을 올리며 오래 살으시기를 비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평소의 생신에도 헌수를 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꼭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이 조촐하게 헌수(獻壽, 술을 올리며 절을 한다.)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수연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2. 어른께서 태어나신 날은 생신(生辰)이라 한다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生日)이라 하고 웃어른의 생일은 생신(生辰)이라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의식이 수연례(壽筵禮)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20안 자식이요 30안 재물”이라 했다. 그 말과 같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수연 의식을 행하려면 아무래도 어른의 나이가 50세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름 있는 생일은 51세부터이고 구태여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자손이 30세가 넘으면 경제 생활을 하는 연령이므로 비단 다음에 열거하는 생신 뿐 아니라 평소의 생신에도 현수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자손 된 도리라 할 것이다. 현수는 바로 오래 살으시기를 축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자손이라면 거를 수 없는 것이다.

① 망육순(望六旬) | 51세의 생신이다. “20안 자식이요, 30안 재물”이라는 말과 같이 자기가 난 아들이 앞가림을 해서 부모의 생신을 챙기려면 부모가 50세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51세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 51세는 60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뜻으로 망육순(望六旬)이라 한다. 서울 세종로 4거리 교보문고 앞에 기념비 전(記念碑殿)이 있는데 바로 고종황제(高宗皇帝)의 51세, ‘망육순 기념비’이다.

② 육순(六旬) | 60세 때의 생신이다. 육순이란 열(旬)이 여섯(六)이란 말이고,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6갑을 다 누리는 60세를 경사로 알았다.

③ 회갑·환갑(回甲·還甲) | 61세 때의 생신이다. 60갑자를 다 지내고 다시 낳은 해의 간지(干支·六甲)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④ 진갑(進甲·陳甲) |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62세 때의 생신이다.

⑤ 미수(美壽) | 66세 때의 생신이다. 옛날에는 66세의 미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으나 77세 88세 99세와 같이 같은 숫자가 겹치는 생신을 이름 붙였으면서 66세를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 직장의 거개가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기 때문에 66세는 모든 사회 활동이 성취되어 은퇴하는 나이이면서도 아직은 기운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이므로 ‘미수(美壽)’라 하였고, 또 ‘美’ 자는 六十六을 뒤집어 쓰고 바로 쓴 자이어서 그

렇게 이름 붙였다.

⑥ 칠순·희수(七旬·稀壽) | 70세 때의 생신이다. 희수(稀壽)는 옛 글에 “사람이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의미임으로 아랫사람이 웃어른의 나이를 말하기에는 죄송한 표현이다. 안 쓰는 것이 좋다. 열이 일곱이라는 뜻인 칠순(七旬)이 더 좋다.

⑦ 희수(喜壽) | 77세 때의 생신이다. ‘喜’ 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⑧ 팔순(八旬) | 80세 때의 생신이다. 열이 여덟이라는 말이다. 산수(傘壽)라고도 한다. ‘傘’ 자에는 八과 +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서 쓰는 말이다.

⑨ 미수(米壽) | 88세 때의 생신이다. ‘米’ 자가 八十八을 뒤집어 쓰고 바르게 쓴 글자인 데서 유래되었다.

⑩ 구순·졸수(九旬·率壽) | 90세 때의 생신이다. ‘率’ 자를 초서로 쓰면 九+이라 쓰여지는 데서 졸수라 하는데 ‘率’이란 끝나다 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다. 어른의 나이를 말할 때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오히려 열이 아홉이라는 구순(九旬)이 좋다.

⑪ 백수(百壽) | 99세 때의 생신이다. ‘百’ 자가 ‘百’ 자에서 ‘一(하나)’를 뺀 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엇대서 말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다.

⑫ 기수(期壽) | 100세 때의 생신이다. ‘期’는 돌기, 백년기라고 해서 100살을 말하는 말이다. 예기 곡례편 상(禮記 曲禮篇上) 16장(章)에 ‘백살이 되면 기라 하여 부양을 받는다(百年日期니 覲 라)’고 하였다.

3. 회혼례(回婚禮)

회혼례는 수연은 아니나 역시 나이가 많이 들어야 맞는 경사이므로 여기에서 약술한다.

① 회혼례의 명칭 | 혼인한 회갑(婚姻回甲)이란 뜻에서 회혼례라 한다.

② 회혼례의 절차 | 모든 절차와 방법은 수연과 같은데 다만 다음 몇 가지가 다르다.

1. 부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의 복장은 혼례복으로 하기도 한다.

③ 혼인 기념일의 명칭 | 우리나라는 혼인과 관계된 경사를 회혼례만 찾았는데 외국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수연이 자손이 마련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념도 자손이 차리려면 30주년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30주년 → 진주혼(珍珠婚)
2. 35주년 → 산호혼(珊瑚婚)
3. 40주년 → 녹옥혼(綠玉婚)
4. 45주년 → 홍옥혼(紅玉婚)
5. 50주년 → 금혼(金婚)
6. 60주년 → 회혼(回婚). 금강석혼(金剛石婚)

■ 자손의 위치에서 보면 부모께서 혼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들이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고, 그냥 보낼 수가 없는 날이라 할 것이다.

4. 수연례 장소의 배설(配設)과 상차림

(요사이 수연례의 좌석배치에 문제가 많다.)

① 요사이 수연례의 수연 당사자 어른의 위치를 보면 남자가 서쪽에 앉고 여자가 동쪽에 앉아 있다. 이것은 죽은 신위(神位)를 제사지낼 때에 모시는 위치이고 묘지에 부부를 합장할 때의 시체의 위치이다. 어떻게 살아계신 어른을 죽은이의 위치에 앉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예절을 몰라서일 것이다.

② 수연 당사자 좌우에 그 형제자매들이 나란히 앉는다. 그리고는 수연 당사자가 자손에게서 헌수 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 자손들이 그 어른들에게는 헌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수연자의 어른(형이나 누님)에게는 수연자가 술을 올리며 절을 하는 것이고, 수연자의 동생(弟)와 누님(姊)들은 수연자에게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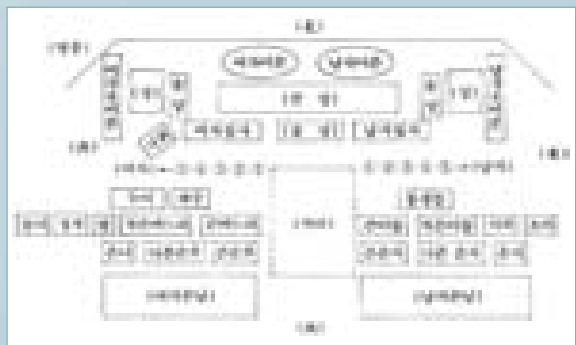
을 올리며 절을 하는 헌수(獻壽)를 해야 하는 것이다.

(1) 좌석 배치 | 상좌(上座, 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의 중앙 남쪽의 동쪽에 남자 어른, 서쪽에 여자 어른의 좌석을 마련하고 어른 앞 남쪽에 큰상을 차리고 큰상의 남쪽 중앙에 술상을 놓고 술상의 동쪽에 남자 집사, 서쪽에 여자 집사가 서고 술상의 남쪽에 절하는 자리를 깔고 자리의 동쪽에 남자 자손, 서쪽에 여자 자손이 위치하고 큰상의 서쪽 앞에 집례(司會)가 자리 잡고 자손들의 남쪽에 손님들의 상을 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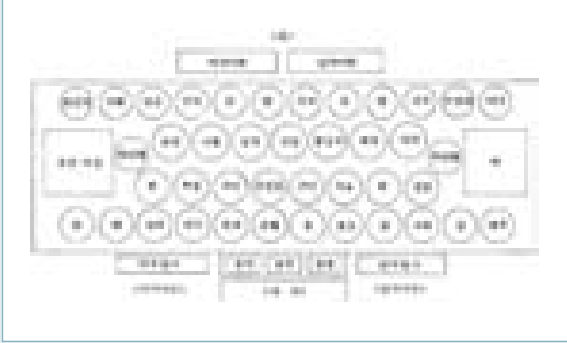
이때 자손들의 위치는 북쪽과 중앙의 절하는 자리 쪽을 상석으로 한다. 제사지낼 때와 수연례에서의 참예자(參詣者)의 위치는 '남자는 동쪽에 위치하는데 서쪽(중앙의 자리쪽)을 상석으로 하고(丈夫 處東 以西爲上), 여자는 서쪽에 위치하는데 동쪽(중앙의 자리쪽)을 상석으로 한다(婦人 處西 以東爲上).' 고 하였다.

만일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큰상의 동쪽에 서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남자 웃어른(숙부와 형들)이 북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로 위치해 앉고, 서쪽에 동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여자 웃어른(숙모와 형수 및 누님들)이 북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로 위치해 앉는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2) 수연례의 상차림: 큰상은 형편대로 차리는데 상차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연 상에 모조(模造)음식을 올리는 것은 어른을 속이는 것이 되어 잘못이다.

① 떡과 포(4각형 접시) 접시의 인쪽에 모란(牧丹)꽃을 꽃병에 꽂아 놓는데 모란꽃의 꽃말이 부귀장수(富貴長壽)이기 때문에 오복(五福)을 누리시며 오래 살으시기를 비는 의미에서 상에 올리는 것이다. 왕실의 잔치상에 올리는 진찬화(進饌花)는 무궁화(無窮花)인데 수명복록(壽命福祿)이 무궁하시기를 비는 의미였다. 같은 의미이다.

② 왕실의 잔치상도 정형(定形)이 없었다. 그것은 계절에 따라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과실은 서쪽나무(栗)라고 쓰는 밤을 서쪽에 올리고, 붉은 색인 대추를 해가 뜨는 동쪽에 올리며 기타는 어른께서 잡수시기 편하게 상을 차리면 될 것이다.

5. 수연례의 절차

(1) 헌수(獻壽)절차

• 수연례(獻壽 家長禮) 흥기 · 식순

수연례는 자손들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헌수 절차, 즉 가족 행사와 외부 손님을 대접하는 연회(잔치) 절차로 나누어서 행한다.

① 남녀 자손들이 성장하고 정한 자리에 복향해 선다.

②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아들들이 남자 웃어른을 인도해 동쪽의 정한 자리에 북쪽을 상석으로 차례대로 서향해

앉게 하고, 며느리들이 여자 웃어른을 인도해 서쪽의 정한 자리에 북쪽을 상석으로 차례대로 동향해 앉으시게 한다.

③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수연 당사자 내외를 인도해 큰상 앞으로 와서 남자 어른은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 어른은 서쪽에서 동향해 마주선다.

④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이 평절로 한번 맞절을 한다. (만일 주악이 있으면 이때부터 올린다.) 회혼례의 경우에도 절은 평절로 맞절을 하는 것이 좋다. 회혼이 되면 연령이 8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혼인례 상을 차리고 혼인절차를 재현하는 의식이나 큰절 접절은 기운이 없어 무리이다. 평절이라도 아들 며느리가 부축하는 것이 좋다.

⑤ 수연자는 큰아들 내외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남자 웃어른 앞으로 가서 술을 한잔씩 올리고 인사말씀을 드린 다음에 절을 한다. 답배해야 할 웃어른은 답배한다.

⑥ 다시 서쪽으로 가서 여자 웃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⑦ 남자 어른은 큰아들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동쪽으로, 여자 어른은 큰며느리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서쪽으로 돌아 각각 정한 자리에 앉는다.

⑧ 모든 자손이 동시에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절한다. “지금부터 헌수례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아뢰는 절이다.

⑨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술상 앞으로 나가 아들은 동쪽, 며느리는 서쪽에 복향해 꿇어앉는다.

⑩ 남녀 집사가 꿇어 앉아 잔반을 들어주면 큰아들 내외가 받고, 남녀집사가 큰아들 잔과 큰며느리 잔에 술을 따른다.

⑪ 큰아들은 일어나서 술잔을 받들어 남자 어른에게 올리고 큰며느리는 일어나서 여자 어른에게 올린 다음 공수하고 서 있다. (집사가 받아서 올리는 것이 더 좋다.)

⑫ 어른이 술을 마시고 잔을 주시면 받아서 술상 위에 놓고 큰아들은 재배, 큰며느리는 4배한다.

⑬ 큰아들 내외는 꿇어앉고, 큰아들이 축수(祝壽)한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고 오복을 누리시며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⑭ 남녀어른이 대답한다.
“오나 고맙다. 너희들의 효성이 지극해 우리가 즐겁구나.”

⑮ 만일 헌수할 자손이 많으면 큰아들 내외가 헌수할 때 큰아들의 자손들은 그 뒤에 늘어섰다가 함께 절한다.

⑯ 이어서 작은아들, 딸, 동생, 조카, 기타의 순으로 부부가 나가서 큰아들 내외가 하듯이 헌수한다
(축수말씀은 올리지 않는다). 아랫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평절로 한번 절하고, 당사자는 평소에도 답배나 맞절을 하던 사람에게는 평소와 같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⑰ 자손이나 친척들의 헌수가 끝나면 제자 기타 헌수할 사람들이 헌수한다. 많은 제자들이 동시에 헌수할 때는 대표자만 앞으로 나가 헌수하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 좌석에서 기립해 있다가 대표가 절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한다.

⑱ 헌수가 끝나면 어른이 일하는 사람이나 집사에게 명한다.
“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⑲ 집사, 기타 일하는 사람들이 음료와 안주가 담긴 쟁반이나 작은 상을 날라다 자손마다 한상씩 준다.(자손이 많으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또는 큰아들 내외에게만 주어도 된다)

⑳ 자손들은 두 손으로 주안상을 받아 바닥에 놓고 모든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어른이 주신 술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이다.)

- 모두 앉아서 각기 하석, 서쪽을 향해 음료를 마신다.
- 수연자 어른이 자손들에게 교훈이나 감회 등 소감을 말한다.
- 수연자 어른이 자손들에게 명한다.

“이제 나아가서 오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라.”

- 남녀 자손이 일어나서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하고 각기 상을 들고 나간다.
- 이상의 헌수 중에는 자손이나 하객들은 음식을 들지 않는 것이 좋

다. 한 쪽에서 헌수하는데 하 쪽에서 음식을 드는 것은 서로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 좋지 않다.

- 이상으로 헌수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이어서 연회를 한다.

2. 연회(宴會)절차

사회자가 진행한다.

남녀 자손들이 성장하고 정한 자리(남자는 어른의 뒤 동쪽에, 여자는 어른의 뒤 서쪽에 아들 며느리가 중앙, 딸 사위가 바깥 쪽)에 남향해 선다.

① 개회선언 | “지금부터 ○○○선생님(여사님)의 ○○회 생신, 수연 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자와 웃어른도 일어난다.)

② 일동경례 | “모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선 자리에서 앞을 향해 경례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어른과 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자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앉는다.)

③ 약력소개 | “○○○씨가 ○○○선생님(여사님)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자나 후배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가 약력을 소개한다.)

④ 모시는 말씀 | “○○○선생님(여사님)의 큰아드님 ○○씨가 손님을 모시는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미리 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가 손님을 모시는 인사말을 정중히 한다. 끝으로 인사 경례를 할 때에는 모든 자손들이 동시에 정중히 경례한다.)

⑤ 축사·송사 | “○○○선생님께서 축사(송사)를 하시겠습니까.”(큰아들 내외가 축사할 손님을 정중히 맞아 드린다.)

⑥ 축시 낭송, 축가, 축하 작품 소개, 축전 소개 | (축시·축가·축하작품·축전 등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⑦ 기념품·선물증정 | (사회자가 소개하는 대로 준비된 기념품이나 선물을 증정한다. 자손들이 먼저 하고 손님이 다음에 한다.)

⑧ 답사 | “○○○선생님(여사님)께서 감사하는 답사를 하시겠

습니다.” (수연 당사자 어른이 인사한다.)

⑨ 송수건배(頌壽乾杯) | “○○○선생님의 선창으로 건배하겠습니다.” (모두 잔을 높이 든다)

“○○○선생님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하시겠습니까.”

“만수무강! (선창)

“지화자! (합창)

⑩ 여흥 | “이어서 여흥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 수연례 축의(부조) 서식



수연아들 내외가 수연자를 인도한다.

수연자 부부가 맞절을 한다

수동쪽 남자 웃어른에게 술을 올린다.

수서쪽 여자 웃어른에게 술을 올린다.

경기북부권 문화원장

협의회 개최

경기북부권문화원장 협의회(협의회장 : 포천문화원장 이만구)는 13일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경기북부권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인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시민이 동참하여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지역고유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지역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파주시장을 대리해 시민지원국장의 환영사와 파주시의 시정홍보 동영상 시청과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파주문화원의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본 행사에는 파주시 문화관계자가 참석하여 문화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지역문화원과의 협력을 다졌으며, 또한 파주시의 후원으로 IG디스플레이 공장과 예술인마을 ‘헤이리’를 방문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북부문화원장 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발족 했으며 회원문화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포천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양주문화원, 동두천문화원, 연천문화원, 고양문화원, 파주문화원, 가평문화원, 남양주문화원, 구리문화원

거창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

제1회 거창실버연극제 ‘금상’ 수상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 실버청춘연극단이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주최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거창연극학교 장미

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거창실버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힘과 꿈이 솟는 계절에 활기찬 실버, 즐거운 연극,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극제에는 거창문화원을 비롯해 여수시노인복지관,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복지센터, 부산실버벨노인복지관, 서울 극단 하늘소리 등 6개 팀이 참여하여 경연을 벌였다.



거창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은 새마을운동으로 사람과 사회가 변화하려는 개혁의 시대에 홀로 8남매를 키우며 늙어가는 어머니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어머니 울지 마세요’라는 연극으로 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어머니 역은 맡은 이순경 회원은 여자연기대상을, 며느리 역은 맡은 공경자 회원은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대사 하나 외우기 힘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끼와 재능, 끊임 없는 노력 그리고 연극에 대한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체험의 주체자로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고, 문화적 감성과 소통하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구리문화원

제57보병사단 용마부대에서 ‘2009 전통 성년례’ 개최

5월 14일 제57보병사단 호국관에서 ‘2009 전통 성년례’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57사단 용마부대의 장병중 만 20세로 실제 성년 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성윤 외 129명이 구리문화원 예절회원들의 주도아래 전통 성년의식의 예로 1시간 여 동안 이루어졌다.



*사진: 2009년 57사단 용마부대 성년례

성년례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거치게 되는 통과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중 첫 번째 관문이다. 관례는 남자에게

는 관(冠)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를 행하며 생겨난 명칭인데, 관례는 갑오개혁이후 머리를 이전처럼 기르는 사람이 적어지고 갓을 쓰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혼례에 흡수되어 사례 중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는 관례라는 이름보다는 만 20살이 되는 남녀에게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성인의 대열에 들었음을 인식시키는 성년식을 치르고 있다.

먼저 1부 행사는 기념식으로 제57보병사단 박대섭 사단장님의 용마 전우의 성년기념 축사와 함께 몇가지 당부 말씀이 이어졌다. “어른이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며 어린 마음을 버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하고 남을 배려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바란다”며 국가의 동량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2부 행사로 시작된 전통 성년례는 김문경 구리문화원장님의 주례로 시가, 재가, 삼가례의 축사에 이어 술을 내리는 의식인 초례축사로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57보병사단의 사단장님의 수훈수여가 이루어졌다.

일일이 130명의 손을 잡으며 성년자에 대해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는 모습에서 사단장님의 장병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기진작이 고무되는 모습이였다.

관례자인 이병 김승현은 “이번 성년례를 통해 정식으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며,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고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대섭 사단장은 성년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은 “요즘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윤리나 도덕을 생각해보거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성년식이라는 예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신이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국가적으로 확대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성년례 행사는 군부대 특유의 통일감 있고, 엄숙하고 진지한 장병들의 모습을 보며 어른으로서의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 뜻 깊은 행사였다.

〈구리문화원 홍보단 이미자 기자〉

남해문화원

이호균 남해문화원장, 국무총리 표창

한국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정받아 이호균 문화원장이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인권보호, 권익 증진사업에 숨은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로 부터 직접 수여받았으며 그간 문화 인프라 구축과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문화원의 위상제고의 역할수행이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결혼 이민 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늘어난 다문화가

정의 문화, 풍습, 언어의 갈등,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은 글로벌·다문화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다

지난 2004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결혼식 무료 주례와 한국 친정 어머니 맺기 사업을 전개하여 결혼식에 친정엄마로 상견례와 동시에 상호 가정을 방문하고 이주여성의 출산 시 미역과 기저귀를 준비하여 산후조리와 양육준비에 도움을 주는 등 다문화 가족사업의 연결고리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또, 남해문화원과 경상대학교 국어교육센터의 컨소시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채택돼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글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참여프로그램 전통문화 예술교육 등을 실시해 사회 적응 능력향상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일, 다문화가족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앞으로 3년간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기초교육 및 방문교육, 취·창업교육, 아동양육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호균 문화원장은 “결혼 이민 여성의 조기정착을 돕고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과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문화원

제9회 관례·계례행사

지난 5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죽서루 경내에서 삼척문화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삼척시/강원문화재단/삼일고등학교가 후원하는 제9회 관례·계례 행사가 열렸다. 집례는 삼척문화원 부설 ‘전례연구회’에서 맡았으며 ‘전례연구회’ ‘너른마당풍물패’ ‘문화여성회’에서 협찬했다. 풍물로 식전

행사를 열었으며 삼척시 부시장과 삼척시의회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 2부 순서로 관·계례를 진행한 후 폐회식 후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식후 행사로 풍물한마당이 열렸다. 이후에는 오찬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삼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성대한 성인예식을 거행하고 있고 의식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는 데 의의를 두었다. 우리의 장려한 전통성인식 복원 확산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삼척문화원에서는 거의 사라진 우리의 멋진 전통성인식인 冠禮(관례) · 笄禮(계례) 행사를 재현하여 건전한 사회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원

성남의 큰 어른, 2009 둔촌 백일장 제14회 둔촌 청소년 문학상 및 제4회 둔촌 시 조시·한시 백일장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5월 9일, 옛 광주권을 본향으로 하는 광주이씨의 중시조이자 고려 말 성리학자로 존경을 받아온, 둔촌 이 집 선생(1327~1387, 경기도기념물 제219호)을 추모하기 위한 <2009 둔촌 백일장>을 대원공원(하대원동)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둔촌 이 집은 천성이 개결하고 정직하며 충절심이 높았고, 봉순대부 판전교시사 벼슬에 오른 것은 물론, 학문이 고명하고 문장이 초매하여 포은 정몽주는 “세속을 초월하여 고결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송했으며, 삼은(三隱/ 포은 정

몽주,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과 교우하며 존경 받아왔던 인물이다.

이 행사는 <제14회 둔촌 청소년 문학상>과 <제4회 둔촌 시조시·한시 백일장>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원공원에서 성남·광주·하남시 소재의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청소년 백일장과 일반인들의 시조시 백일장이 진행됐고, 특별공연으로 ‘웃다리 풍물’, ‘진양산조’, ‘장고춤’ 공연이 펼쳐지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시인들의 백일장이 진행됐다. 당일, 운자를 추천하여 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한시 백일장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연상하게 할 만큼 참가자들의 지역이 대구, 정선 등으로 다양했으며, 엄숙한 가운데 백일장이 치러졌다.

이날, <둔촌 백일장>에 참가한 인원은 총 400여명이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한 참가자 중 103명이 입상하여, 총 2,4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3회 중국 둔촌 백일장 및 ‘一冊 읽기와 詩朗誦’ 개최

지난 5월 16일에는, 성남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의 혼남신구 조선족 학교에서 <제3회 중국 둔촌 백일장>이 개최됐다.



성남문화원이 심양시교육국 민족교육처, 심양시조선족문화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학조, 초중조, 고중조, 교원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심양시 조선족 학생, 교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일 현장에서 제시된 ‘둔촌 큰어른’, ‘부모 사랑’, ‘푸른 5월’ 중 1개 제목을 선택해 마음껏 글 솜씨를 뽐냈다.

당일 심사는 김창영 심양시조선족문화회장, 림금산 료녕조선문보 부총편, 권준철 료녕민족출판사 조선어문 편집실 주임 등과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시조시인), 김 중 시조시인의

최중심의를 거쳐, 고중조 장원을 수상한 박 연 학생(심조2중 학교) 외 총 229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고,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선양 한국인문화센터에서 '2009 한·중 문학인 만남, 一冊 읽기와 詩 낭송' 행사가 열렸다.

김춘련 심양시 조선족문학회 이사의 '목련' 시 낭송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중국 심양에서 최초로 개최된 '문학인 행사'로, 이해재 광주이씨 대중회 도유사, 김창영 심양시 조선족문학회장, 오준기 월간지 <THE PEOPLE> 대기자, 김금용 한국시인협회 회원(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사모), 권유현 재선양한국인회장, 김종광 광주서구문화원장(시조시인), 서정순 심양시 조선족문학회 이사, 리창인 前 시조문학회장 등 한국과 중국 심양의 문학인 100여명이 모여, 애독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한국에서도 시낭송회가 범국민적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어, 성남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에서 책 읽기와 시낭송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 문화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문화원

가족이(아빠,엄마)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



포항문화원에서는 포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지역의 고유문화재의 자취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포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원에서는 홍보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월별 답사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접수는 방문접수나 이메일로 한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일깨워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어른들에게는 향토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학생, 자녀들에게 국사, 세계사 교육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향토사, 지역사 지도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 자	주 제	행 선 지
4월 25일	선사와 고대를 찾아서	천곡사 - 냉수리교본 - 냉수리신라비 - 보경사 - 칠포고인돌 - 칠포암각화
5월 23일	전설과 함께하는 구룡포	일월시장 - 할배선들 - 공당리고인돌 - 광암서원 - 뇌성산성 - 구룡포적산기옥 - 호미곶등대
6월 27일	유교문화를 찾아서	흥해향교 - 입암서원 - 덕동민속마을
8월 22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기	장기향교 - 장기읍성 - 장기척화비 - 우암송시열 - 다산정약용선생 사비 - 충효관 - 고석사
9월 26일	선현들을 찾아서	상달암 - 달전제사 - 봉강재 - 기계분옥정 - 도원정사 - 기천고택

횡성문화원

고(故) 이연승 선생 추모 동시비 건립 12주년 기념 어린이 글짓기대회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故이연승 선생의 아동문학세계와 업적을 후손들에게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학 활동을 창달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고(故) 이연승 선생 추모 동시비 건립 12주년 기념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계획했다.

행사는 지난 5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에 횡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약 400명이 모여 동시부, 산문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강동문화원

깊어가는 봄, 온 동네에 퍼지는 문화의 향취

4월 15일 개강해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3기 강동문화대학은 주민들을 위한 두 번의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신영희 명창의 '우리 소리를 찾아서'라는 강연을, 5월 20일에는 이순재 방송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라는 강연을 수강생이 아닌 전 주민들과 함께 했다.



4월 29일 첫 번째 공개강좌인 '우리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신영희 명창이 판소리 '홍부기'와 민요 '상주아리랑'을 배워 보았고, 신영희 명창이 생각하는 우리 소리의 현실과 문제점,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소리를 아껴야 하는지를 들어 봤다. 우리 소리인 만큼 신명나는 강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5월 20일 두 번째 공개강좌인 '행복한 삶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에서는 깊은 연기로 오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순재 방송인이 주민들과 함께 했다. 1956년 '나도 인간이 되련가'로 데뷔, 50여년이 넘도록 큰 인기를 구가하며, 깊은 연기로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순재 방송인은, 사적인 면에서도 바르고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있다. 이번 강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만의 노력과 그의 인생을 공유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윤택해 지고, 문화의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강동문화원은 문화대학 매 기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강좌를 두 번씩 시행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로 노력하고 있다.

제3기 강동문화대학 미술관 견학

지난 5월 21일, 강동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3기 강동문화대학에서는 수강생 30여명과 함께 미술관을 견학했다. 수강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도 국제기획전 《인도현대미술 - 세 번째 눈을 떠라》를 기혜경 학예연구사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간간히 기혜경 학예연구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기획전은 ‘프롤로그: 여정들’, ‘창조와 파괴: 도시풍경’, ‘반영들: 극단의 사이에서’, ‘비옥한 혼란’, ‘에필로그: 개인과 집단·기억과 미래’의 다섯 섹션으로 꾸며져 관람하는 이들을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로 안내했다. 수강생들은 이번 미술관 견학을 통해 지쳤던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통해 이국의 정서를 느끼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즐거운 한 때를 가졌다.

문경문화원

실버문화학교 ‘문경소리공연단’ 문경소리, 태평양에 퍼지다!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의 ‘땡땡! 실버문화학교, 문경소리공연단’이 문경의 소리를 태평양으로 퍼지게 하였다. 지난 5월 15일 울진문화원에서 열린 ‘2009울진문화원 땡땡! 실버문화학교, 울진의 전래민요 전승단’ 개강식에 초청 받은 문경소리공연단은 2년 동안 배우고 익혀, 전국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성공사례로써 문경소리 공연을 펼친 것이다. 문경문화원 실버문화학교는 2007년부터 문을 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문경지역의 향토민요를 송옥자 선생의 지

도로 6곡을 전수받고, 소리 속의 가사에 들어 있는 각종 삶의 모습들을 재현, 소리와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종합예술로 발전시켰다.



지난해까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실버문화학교는 올해부터 정식 국비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실버문화 프로젝트다. 전국의 137개 문화원이 운영하는 이 실버문화학교 중에서 문경문화원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전략육성 20개 문화원에 선정되어 다른 문화원들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실버문화학교의 모범 문화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소리공연단은 올해 6월 4일 개강 예정으로 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연을 펼쳐, 문경을 알리는 이미지 홍보단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사례 공연에 앞서 고성환 사무국장의 성공사례 특강이 있었으며, 울진문화원은 2007년도에 ‘십이령 바지계꾼놀이’를 재현하여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저력 있는 문화원이며, 올해는 강좌 종목으로 바뀌 ‘전래민요전승단’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장흥문화원

문화가족자체세미나(유적지순례)



장흥읍 석대들 동학유적지가 국가문화재(사적)로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타 지방의 문화유적과 문화현장을 탐방함으로써 문화가족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 고장 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장흥문화원에서는 문화가족자체세미나(유적지순례)를 가졌다.

문화가족자체세미나는 지난 5월 11일(월)에 전남 장성군 황룡전적지, 필암서원에서 전북 정읍시 황토 현전적지, 김제시 금산사를 돌아보았다. 문화가족 1300명 중 500여 명이 참여했다.

1. 사업 목적

장흥읍 석대들 동학유적지가 국가문화재(사적)로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타 지방의 문화유적과 문화현장을 탐방함으로써 문화가족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 고장 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가. 순례일정 | 2009년 5월 11일(월) 08:00~19:00

나. 행선지 | 전남 장성군 황룡전적지, 필암서원 → 전북 정읍시 황토 현전적지, 김제시 금산사

다. 참여인원 | 문화가족 1300명 중 500여 명

포천문화원

5회차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실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7일 포천시민 및 포천문화에 관심 있는 인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5회차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문화유적답사에는 포천시민 및 용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시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포천시 관내 문화유적을 방문 답사함으로써 포천의 문화유적을 바로 알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답사에서는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더불어, 충목단, 화산서원, 금현리 고인돌, 포천향교, 평강식물원,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인평대군지제문비를 방문했다.

출발하기 전,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명현, 석학,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자, 문향의 고장인 포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유서 깊은 문화유적을 둘러보고 포천의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포천시민 및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는, 포천시민 및 포천문화에 관심 있는 인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자세한 문의는 포천문화원 ☎532-5015)으로 하면 된다.

『좋은 책 읽기운동』추진협의회 개최 2009 하반기 좋은책 읽기 독후감 모집

포천문화원(원장:이만구)은 2일 포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포천시를 비롯 경기도포천교육청, 도립포천도서관,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예술인동우회, 마흘문학회, 동화 읽는 어른모임 등 좋은 책 읽기 추진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좋은 책 읽기운동』 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와중에서 잠시라도 여가가 생기면 대다수가 TV시청, 컴퓨터게임에만 몰두하는 등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독서와는 거리가 멀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신문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추진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



여하고 하반기 추천도서에 대한 심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또한 포천도서관, 일동도서관, 포천시 새마을문고 등에서는 추천도서를 비치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서점에도 통보하여 구입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독후감 모집은 초, 중, 고등부와 일반부로 구분하며 11월 중순까지 모집하며,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중, 고등부 7장, 일반부 10장 내외로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

촉 엄격히 심사하여 12월초 “문화인의 밤” 행사에서 함께 시상할 계획이다.

포천시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단 문화유적답사 실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5월 26일 포천시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문화유적답사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50여 명이 참여하여 포천시 관내 문화유적을 방문 답사함으로써 내 고장의 문화유적을 바로 알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회에 걸쳐 실시한 이날 답사에서는, 오전 교감단 유적답사에 양윤택 포천문화원 부원장, 오후 교장단 유적답사에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의 해설과 더불어, 서성 선생 묘, 충목단, 화산서원, 육사생도 참전기념비, 인평대군치제문비를 방문하였다.

조선 중기 행정의 달인으로 불려졌던 서성 선생 묘소를 방문하여 선생의 청렴결백하신 선비정신을, 충목단과 육사생도 6·25 참전기념비에서는 유응부 장군의 충절과 6·25 당시 장렬하게 전사한 육사생도의 넋을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렸으며, 화산서원에서는 백사 이항복 선생의 임진왜란 극복 등 우국충정을 마음에 되새기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전략육성사업 설명회

지난 5월 29일 군포문화원에서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전략육성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전략육성 대상 20개원 실무자 22명과 컨설팅단 박상욱(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백령(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이금룡(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체계를 비롯하여 전략육성 사업 추진계획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전국 지방문화원장의 지역문화 경영마인드 제고와 지역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워크숍 및 전국 문화원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회장 및 224개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2009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를 갖는다. 전국 각 문화원의 문화원경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장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세미나는 6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지방문화원장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방문화원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문화 소식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다문화가정 제주도로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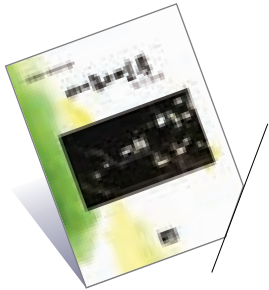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출신 모범 다문화가정 10가구를 제주도로 초청, 문화행사 관람과 제주관광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초청된 이주민은 지방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 가운데 평소 여가 기회가 부족했던 모범가정이 추천되었다. 한편 6월1일 제주 사인빌리조트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초청 오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라님 원씨양(31, 충남 당진)씨는 "6년전 태국에서 시집와서 낯선 언어와 문화만큼이나 다문화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힘들었다"면서 "다행히 문화원의 한국어교육으로 사회 적응이 수월했는데, 이주민에게 한국문화 교육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40명은 이주민과 남편, 시부모와 자녀들로 3박4일 동안 오케스트라 공연과 한아세안 영화 관람, 제주도 주요관광지 등을 관광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문병란 제 26시집 매화연풍
문병란

희망가로 서문을 연 문병란 시인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가 꽃을 틔운다는 이야기로 책 편 이의 마음을 몽클하게 한다. 표지의 매화나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부르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보인다. 더디게 읽혀지는 것이 시집이라지만 이 책은 단번에 읽힌다. 대차고 스스럼없는 그의 언어들에 힘이 있기 때문일까. 읽다보면 누가 손잡고 보폭을 맞추어 같이 걸어주는 듯 하다. 제법 많은 양이지만 그 인도로 끝장까지 실새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겠다. 해설에 부친 시에 관한 시인의 말들을 빌어 그의 시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땅의 슬기롭고 용감한 민중에게 책을 바친다는 문병란 시인의 말대로 희망 하나 가슴에 담고 책장을 닫는다.



마산성신대제 복원 모형 연구
마산문화원

마산문화원에서는 지난해 마산 성신대제 연구를 발간한 데 이어 마산문화 연구총서 두 번째로 마산성신대제 복원 모형 연구를 발간하였다. 마산성신대제는 마산의 민속과 역사를 아우르는 가장 오래된 마산 전통문화의 상징이다. 1900년대 초반에 단절되었던 것이 부흥한 성신대제는 별신제라는 이름에서 성신제라는 한역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의 형식과 제문 등을 유교식으로 정비하면서 매년 3월 28일 기제를 지내고, 5년 주기로 중제(中祭), 10년 주기로 대제(大祭)를 지낸다. 마산의 뿌리이자 현재인 마산 성신대제의 복원 모형 연구를 위해 노성미, 이경미, 김지민, 이철한, 소성안, 한정호 6명의 전문가가 글을 썼다. 제의 모형에서 놀이마당 복원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상세히 풀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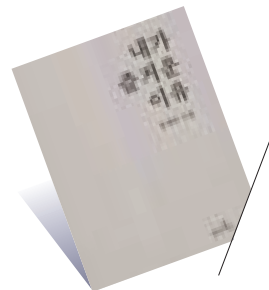
서정 김동혁
광양문화원

광양문화원에서는 광양의 인물 서정에 관한 책을 펴내었다. 박노희 광양문화원장의 발간사에 따르면 서정은 청춘과 영화를 버리고 농막지기를 자처한 인물이다. 백운산 농장 개척으로 우리나라 산악 농업의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평생 농민운동을 통하여 신념과 철학에 살아, 한국의 달가스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광양을 대표하는 농업의 선구자인 서정을 통하여 삶의 귀감을 얻게 하고 후손들에게 그 뜻을 기리기 희망한다고 박원장은 함께 밝혔다. 생소한 인물이라 쉽게 손이 가지 않지만 책의 초입에 들어선 사진들을 보며 서정의 행적을 훑다보면 정감이 간다.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 책은 1부에서 서정의 생애를 조망하며 2부에서는 서정의 글을 실고 3부에서는 각계 인사의 추모의 글이 실려 있다. 요즘 들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편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세태에 귀감이 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전 광양시지 편찬위원회 김광호 삼임위원이 집필했다.



마산영화 100년
마산문화원발행

이 책의 저자 이승기는 1899년 마산 개항 이후로 마산의 근대를 일구어낸 것은 영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마산영화의 역사가 마산의 근대를 비추어볼 거울이라고, 1장은 마산의 개항에 관해 설명하고 2장에서는 마산지역에서의 영화 상영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하사마 창고에서 상영된 최초의 영화에 대해 추적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이외에도 최초의 영화관인 환서좌 이야기와 극영화, '청춘의 설움' 등 마산에서 영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둔 보물상자와 같은 책이다. 오래된 상자를 열어 오래된 물건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처럼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그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옛 영화 포스터와 스틸을 접하는 재미도 있다. 저자가 펴낸 말에서 밝힌 것처럼 영화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영화팬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싶다. 꼼꼼히 그 역사를 밝히고 애정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내가 즐거운 이유
정재권 정양문화원장

정재권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내가 즐거운 이유가 나왔다. 시인으로 시집에 대한 욕심이 없을 리 만무건만 정재권 시인은 나태한 시적(詩作) 생활에 그 핑계를 대고 공연히 누군가에게 면구스럽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한다. 부족 한 시인에게는 감사할 이름이 많다고 일일이 호명하는 정성을 보인다. 그의 수줍은 인사를 넘기면 시인의 시선이 녹아든 정갈한 문장들이 읽는 이를 맞는다. 서랍장 속에 고이 넣어둔 유년의 일기 같다. 그곳에는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산도 있으며 투표한 기억도 있다. 시인의 말대로 내가 즐거운 이유는 참으로 많다. 채소의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아내의 일탈한 수고, 부모님 산소에서 건너다보는 눈(눈) 달린 우리 집 풍경까지... 일상의 일들에 기뻐하며 의미를 찾아 서로 일궈내는 그의 수줍은 일말이 들어 일일이 맞힌 책이다. 마음이 번잡할 때 곁에 두고 읽으면 쓸모가 많겠다.

전국 학생자치대회

제24회 전국양토문화공모전
4.1 ▶ 9.30

국내 유일의 24년 전통의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2009

제24회 전국양토문화공모전 경모 소망

주최 : 한국문화재단
주관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www.yangto.com

● 공모 범위
초, 중,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학생

● 공모 주제
1. 2008. 4. 1 ~ 2008. 9. 30일까지

2.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주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

● 공모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학생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주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

● 공모 방법 및 지원금

· 공모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토사 홈페이지
· 접수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접수처

● 접수 방법 및 접수

· 접수처 :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 4. 1 ~ 2008. 9. 30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문의 : 02-709-2000

● 시상내역

구분	상위	중위	하위
초등부	100명	100명	100명
중등부	100명	100명	100명
고등부	100명	100명	100명

양토사 학생연구 공모전
www.yangto.com